

# 쇼 정 이

오늘의 화답송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제 1 독서 : 1열왕 19,4-8    제 2 독서 : 에페 4,30-5,2    복 음 : 요한 6,41-51



## 살아 있는 빵, 살아 있는 세상

박 창 신 신부/무주 성당 주임

먹고 사는 것.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알 수 없듯이, 먹는 것이 사는데 중요함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것 뿐인가? 함께 먹는 식구 공동체는 얼마나 끈끈하게 사는지 잘 알고 있다. 남이라도 한 식구 공동체가 되어 함께 먹으면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생기지만 한 핏줄이여도 같이 먹는 것을 멀리하면 점점 멀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먹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중요한 먹거리 음식으로 예수님이 축성되어, 빵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은 또 하나의 감사함이고,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살아 있는 빵이며, 또 다른 수육(受肉)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 있는 빵으로 축성되어 오심은 그 뜻하는 바를 이루어 실천하라는 것이다. 그분의 뜻하시는 바는 살아 있는 빵으로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믿어 먹고 마시면서 당신과 하나 되도록 하심도 있지만, 음식은 서로 나누어 생명을 나누는 성사의 의미를 실천하라는 뜻도 있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 움켜 쥐려는 보수로 향하는 경향과 나눔으로 이루는 정의의 세상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 두개의 경향이 서로 작용하여 역사를 조금씩 발전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 공동체는 힘있는 자들의 법 제정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보존 발전시키며 나눔과 평등보다는 움켜쥐는 사회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달랐다. 이스라엘 민족은 에집트에서 해방된 후 40년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므로 민족 전체가 가난뱅이가 되는 깊은 체험을 했다. 야훼는 이들 가난뱅이들에게 약자를 보호하는 안식법과 회년법을 제정해 주

셔서 실천하도록 요구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를 쾌히 승락하여 평등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계약을 맺으셨다. 불행하게도 이 평등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부의 균형을 잃고 힘있는 자들의 논리에 따라 보수의 길로 가면서 하느님의 계약을 버리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활동하며 하느님의 정의를 부르짖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년(루가 4,19)을 실천하도록 선동(루가 23,5)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까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라 파견하며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살려 주어라(마태 10,8)고 하셨다.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편에 섰던 예수님은 백성의 지도자(루가 19,47)에 의하여 사형을 받으시므로 십자가의 피가 새로이 맺는 계약의 피임을 알려 주셨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 수록 보수의 경향은 강해진다. 그래서 불의와 부패가 창궐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때 새로운 세상건설은 혁명의 방법과 나눔을 실천하는 신앙의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교회는 혁명보다는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 있는 빵, 성체성사가 의미하는 새로운 계약의 피가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새로운 계약은 지금도 계속 실천되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봉헌하는 미사는 이 세상을 바꾸는 나눔의 성체성사가 되어야 하며, 교회 공동체는 이 미사를 통하여 나눔이 실현되는 기도를 계속 봉헌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빵으로 축성되는 미사는 세상구원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살아 있는 빵은 살아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쇼 정 이 산책

### 성모님의 기도

8·15 해방의 감격과 기쁨!

저 무시무시한 '소련'이 스스로 사라진 것이  
성모님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오, 성모님! 조국의 평화통일 마저 도와주소서.



성찬경 세자 요한/시인 · 정준용 아킬로/화가



#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

송 영 진 신부

왜 신부로 사느냐고 누가 물으면, 예전에는 여러 가지 고상한 말을 많이 늘어놓으면서 길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간단하게 “그냥, 좋아서...”라고 한 마디로 대답합니다. 더 이상 길게 대답하는 것은 어찌면 헛된 수식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이 그냥 좋아서’ 이렇게 신부로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 같은 단순한 대답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냥, 좋아서’ 신자가 되고, 성당에 다니고, 기도를 하고, 성직자, 수도자로 살아갑니다.

터무니없는 오해와 비방에 시달려도, 가끔은 생활이 지루하고 따분해도, 어떤 때는 쉴 틈 없는 격무에 지쳐 쓰러져도, 그리고 어떤 때 가끔은 너무 삭막하고 메마른 인생이라는 느낌이 들어도, 그래도 하느님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삽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배고플 때 먹는 자장면 같은 분이십니다.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압니다. 하느님은 목마를 때 마시는 시원한 샘물 같은 분이십니다. 그게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 생명수인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마셔본 사람은 그 샘물 맛을 압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영화 ‘벤허’를 보면, 벤허가 노예신세가 되어, 사막에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갈 때, 예수님이 벤허에게 말없이 물 한 바가지를 건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끌려가는 벤허를 구출하지 않고, 물 한 바가지만 건네주었을까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예수님께, 이번에는 벤허가 물 한 바가지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귀족신분으로 회복되어 고위층이 된 벤허는 왜 예수님을 구출하지 않고, 물 한 바가지만 드렸을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성직자, 수도자로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그 물 한 바가지에 들어 있습니다.



# “돈아, 네 갈 길을 가거라.”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치르는 순간 떠오른 생각이 이렇다. 나도 저 사람도 종이돈을 의심없이 믿고 있구나. 이 종이가 뭐길래 이토록 굳은 믿음을 주고 받는가.

오늘날 돈은 사실 하느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느님이 아니면서 하느님 노릇을 하려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없이 그저 돈이 좋아 돈을 사모하고 돈을 믿는다. 은행 통장정리기에 통장정리를 하고 돌아서는 얼굴에서 가끔 고해실을 나오는 얼굴을 볼 때가 있다. 내 얼굴인들 다를 게 무언가.

이 노릇을 슬퍼해야 하나?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하나?

돈이 필요없는 사람이 있을까? 군인이라면 돈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군인에게 돈 내라는 데가 별로 없다. 수도자는 돈이 필요없을 때가 더 많겠다. 수도자는 돈으로부터 비켜서있는 분들이다.

돈을 가졌으면 돈이 없는 듯이 살 일이겠다. 그러나 TV를 켜도 돈 뉴스요, 신문을 펴도 돈 이야기다. 직장에서도 주식투자 화제가 흔하다.

예수님은 물고기 입 속에서 동전을 꺼내신 분이다. 돈과 물고기 입은 아무 상관이 없다. 돈과 우리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 숨어있는 것일까.

이 시대의 우상이요, 요물단지요, 허깨비인 돈아! 너는 네 갈 길을 가거라. 너로 하여 얼마나 많은 깨끗한 마음들이 슬퍼져야 하느냐.

돈을 굶어다볼 때마다 기도 바칠 일이다. 이런 뜻으로는 돈이야말로 우리의 훌륭한 스승이다. [정]

**성 소 모 임**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 일시 : 8월 20일(주일) 오후 2시  
 (매월 셋째 주일)  
 • 장소 : 군포 본원  
 • 문의 : ☎ (031) 452-9659  
 012-112-9547

**어린이를 위한 노들당종교교육 세미나**  
 • 일시 : 9/2, 9/30, 11/4, 12/2(총4회)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 대상 : 초등학교교사 및  
 가톨릭유치원 교사  
 • 장소 : 군산 성심유치원  
 • 회비 : 150,000원  
 • 문의 : ☎ (02) 764-5292  
 서울 노들당 수녀회 종교교육부

**프란치스코에**  
**몸담았던 형제들의 모임**  
 • 일시 : 9월 16일(토)  
 오후 5시 30분~9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성당과 지하 식당  
 • 기타 : 기혼인 경우 부부 동반  
 환영(숙소 제공)  
 • 신청 : ☎ (02) 752-0853  
 8월 31일까지

간판·현수막·상패·기념품  
 유한  
**회사 레인보우**  
 (무지개 광고기획)  
 김 창 식(스테파노)  
 태평동 농협 하나로마트 옆  
 ☎ (063) 255-4411  
 FAX (063) 255-4412

## 전공의 파업에 대한 성명서

개정 약사법 통과에 즈음한 의료계의 폐업 및 파업사태를 바라보며 가톨릭 교회의 사명과 이념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가톨릭병원협회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참으로 실천을 목표로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극한 투쟁을 하고 있는 의사들과, 이에 대한 강경 방침으로 대응하는 정부에 의해 국민의 편이 무시되고 의권이 침해되는 작금의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과 국가 보건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킨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정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아울러, 파업중인 전공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환자 곁으로 하루속히 돌아와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 하나. 정부는 이번 파업 사태의 책임을 의사들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관련인사의 사법처리를 즉각 중단하며,
- 하나. 병의원 및 약국이 경영이 가능하도록 수가를 현실화하며,
- 하나. 임의조제 유예기간을 단축하고, 대체조제를 금지하여 의사의 진료권이 확보되도록 하며,
- 하나. 지역 의약협력 위원회의 파행 운영되지 않도록 완벽한 대책을 세우며,
- 하나.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 보장(선택 분업)등 환자 불편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라.

2000. 8. 3

한국가톨릭병원협회장 장덕필 신부, 대전성모병원장 윤주병 신부, 성빈센트병원장 차영임 신부, 대구가톨릭의료원장 채영희 신부, 메리놀병원장 하용달 신부, 목포가톨릭병원장 이경철 신부, 성안드레아병원장 양낙규 신부, 청주성모병원장 김홍열 신부, 대구파티마병원장 박제윤 수녀, 성모자애병원장 황우경 수녀, 포항성모병원장 이종녀 수녀, 마산파티마병원장 장종태 수녀, 성가롤로 병원장 박정숙 수녀, 성바오로병원장 김기순 수녀, 성가병원장 홍종숙 수녀  
의 회원병원장 일동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과  
국가 보건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킨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천주교구 사제단

### ■ 주한미군 주둔 55년!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 미군에게 초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유린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 수도 서울 한복판에 거대하게 자리잡은 용산미군기지, 우리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는 미군 PX 불법유출 물품, 군산미군기지 오폐수사건을 비롯한 우리강산을 병들게 하는 미군의 범죄행위... 주한미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에게 과연 주권은 있는가! 이제 우리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실질적 고민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권리가 지켜지는 자유와 기쁨의 대희년 정신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 ■ 주한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SOFA」라는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미군이 주둔한 1945년 이후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국 곳곳에서 10만건이 넘는 미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1년 이후 주한미군의 범죄는 연평균 770건에 이릅니다. 지난해 저지른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 범죄만도 살인사건 1건을 포함해 175건에 이르며, 이는 98년의 138건보다 27%가 늘어난 것입니다. 91년 이후 한국 측이 미군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은 연평균 27건으로 전체사건의 3%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그만큼 한국의 주권이 심하게 훼손되고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나 사고의 예방조치 등을 못하므로 자국민의 피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매향리 등 미 공군 폭격장으로 인한 소음, 오폐피해, 최근 한강 독극물 방출사건 등 주한미군은 그동안 불평등한 군사협정을 보호막으로 그들의 일방적 권리를 뛰어넘어 우리의 강산을 파괴하고, 지자체 스스로의 고유한 발전계획을 가로막음으로써 시민의 삶과 질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권과 인권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 「SOFA」란 무엇인가?

「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고도 불리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입니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이라는 명칭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한국과 미 행정부간의 협정이라는 미국 정부의 시각이 전제된 것이어서 우리 나라로서는 굴욕적인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합니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협정으로 보장됩니다. 한미간의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해 지나치게 불평등합니다.

미군정 시대에 남한에 단독정부가 세워짐에 따라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협정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정부가 미군의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1949년 미군의 일시철수로 종료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미군이 진주하게되어 미국의 요구로 전사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미군에게 일체의 재판권을 부여하는 대전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국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했던 대전협정 체제에서 1967년 한미행정협정 체제로 가기까지 13년이 걸렸고, 한국정부는 그 대가로 미국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체결과 한국군을 월남에 파병하였습니다. 또 국제법상 가장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1967년 한미행정협정 체제에서 1991년 한미행정 체제로 가기까지는 무려 24년이 지나서였고, 91년 개정된 협정 역시 부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 측의 권리행사를 제한시키는 조항들을 개정하지 않음으로 기존의 협정과 거의 변함없는 불평등 구조를 온전시켰습니다. 또한 이 협상개정의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정부에 엄청난 방위분담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한미행정협정의 재개정을 한미간에 합의하면서 한국정부는 방위분담금 증액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협상결렬 통보에 의해 현재까지 중단되었다가 99년 4월 개정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하였지만 미국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10월 다시 한 번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협상재개의 약속이 있었지만 미국측의 지속적인 연기요구로 8월 2일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 현재의 불평등한 SOFA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한미행정협정과 타국 행정협정과의 비교

	한/미 행정협정	미/독 협정	미/일 협정
구 속 수 사	불가능	가능	가능
검 찰 상 소 권	제한	규정없음	규정없음
공 무 판 단	미군장교 지휘관		일본법원(판사)
재 판 권 포 기	중요 경우 아니면 포기원칙	미군요청시 호의적 고려	미군요청시 호의적 고려
형사재판 적용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친척)	배우자와 자녀에 국한	배우자, 자녀, 부모
미국대표 부존제시 진 슬 인 정	불인정	인정	인정
경 찰 권 행 사	미군시설에서 체포, 압수, 수색 등 강제권 행사 불가능	현행범 경우 영장없이 체포구금 가능	미군속, 미군가족 등의 신병이 미군에 있으면 일본당국에 인도

☞ 다음주에 계속됩니다.

<개정 약사법 시행에 따른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입장>

##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개정 약사법 통과에 즈음한 의료계의 폐업 및 파업사태를 바라보며 가톨릭 교회의 사명과 이념하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가톨릭병원협회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각한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한다는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을 바탕으로 교회의 신앙적 양심과 사회적 정의에 입각하여 저희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그동안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은 물론, 닥쳐 올 전공의 파업 등에 의한 의료 대란을 예상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견된 국민 건강과 편의를 무시하고, 임의 대체 조제에 의한 진료권 확보, 수가현실화, 선택분업 등 의료계의 이유있는 호소를 외면한 채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고스란히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의료계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장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막고 향후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서 하루 빨리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언과 질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환자결을 떠난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과 협조하여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안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큰 불편과 혼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예견된 국민 건강과  
편의를 무시하고,  
임의 대체 조제에 의한  
진료권 확보,  
수가현실화,  
선택분업 등  
의료계의 이유있는  
호소를 외면한 채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구·제 단체 소식

1. 군산 사회교정사목후원회 미사 : 8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2. 페루 선교사 지원 2차헌금 : 8월 15일(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3. 제 4차 청년성서(출애굽)연수 : 8월 17일(목)~20일(주일),  
운주
4. 여성 70차 꾸르실료 : 8월 17일(목)~20일(주일), 천호
5. 예비신학생 모임 : 8월은 없습니다
6. 가톨릭 사진가회 : 8월 20일(주일) 오전 7시, 센터
7. 교구빈첸시오회 월례회의 : 8월 19일(토) 오후 3시,  
인후동 성당

#### \* M.E. 81차 주말 교육 \*

- 일시 : 8월 18일(금)~20일(주일)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 우물기도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중앙 성당

#### \* 사이버시대의 종교 지도자 양성과정 \*

- 주제 : 뉴미디어 서바이벌 양성
- 강사 : 피에르 바벡신부  
(국제 커뮤니케이션 센터소장)
- 대상 :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지도자
- 일시 : 8월 28일(월)~9월 2일(토)
- 장소 :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 주관 : 한국 아베스 연구소
- 문의 : ☎ 02-2278-7479(회비 - 30만원)

#### \* 성인 한글교실 \*

- 개강일시 : 9월 1일 오후 1시 30분
- 수업시간 : 매주 화, 금 오후 2시~4시
- 수 강 료 : 3개월 3만원
- 접 수 처 : 교구청 사회사목국  
☎ 284-5290

### 궁금해요 \* 십계명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은 셋째 계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 셋째 계명 :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셋째 계명은 주일을 거룩히 지내도록 명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안식일로 지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에집트에서 해방된 날로 기념합니다.(신명 5,15 참조)

안식일은 사람들이 일상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일의 속박과 돈에 대한 승배에 대항하는 날입니다. (느헤 13,15-22 ; 2 역대 36,21 참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기념합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며, 모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축일로 지내야 합니다.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 즉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1), 성모 승천 대축일(8/15), 예수님의 성탄 대축일(12/25)의 미사에는 꼭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은 은총의 날이며 휴식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계명은 주일에 일과 영업을 삼가고 이웃에게 봉사 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반성, 연구, 묵상 등으로 거룩히 지내도록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내면서 육신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 때문에 주일에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미사에 먼저 참여하고 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 군산경희한의원

원장 : 원 상 연(루까)  
원장 : 윤 원 식  
나운동 롯데사거리 기업은행 2층  
☎ (063) 461-1075(안방치료)  
7585(치료비로)

### 서울방사선과 MRI센터

MRI촬영, CT촬영, X선 일반 및 특수촬영  
초음파촬영, 유방촬영, 골밀도검사  
성인병검사, 종합검진, 임상병리검사  
원장 : 박인숙(아나다시아), 정진영  
터미널옆 금암로타리  
☎ 278-1312-3

### 남문 문구 도매 센터

(교우분들 특별할인)  
문구, 사무용품, 대형마트식 매장  
주차장 완비, 배달가능  
대표 : 원 수 관(아고보)  
심 경 이(마리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다가동 우체국 옆)  
☎ 283-3352

### 황소익스프레스

• 포장이사 · 일반이사  
• 24시간 예약, 상담 · 용달사업부  
즐거운 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 : 노 명 규(헨리교)  
☎ (063) 224-3324/271-2400

### 미 산 에 너 지

심야전기보일러, 전기온수기, 태양열온수기  
난방 절감기 확인 설치비, 사후관리(A/S)등  
국내외 전매이커(설치 및 A/S)의 상담을  
친절히 해드립니다  
강 영 기(레오)  
☎ (063) 468-1480  
H · P / 011-671-3601

### 여성 전문 검진 크리닉 전북방사선과의원

• 진료안내 - 전신컴퓨터 단층촬영, 유방암  
검사, 칼라 초음파검사, 골다공증검사, 신장  
특수촬영검사, 변비검사, 일반 X선검사,  
종합건강검진, 위장관 투시 촬영검사  
송 하 숙(아고버)  
인 여 섭(루치아)  
효자동 주택은행 3층  
☎ (063) 228-6060

### 새 천년 안경원

시력 검사 및 누진다초점렌즈  
색맹, 색약 렌즈 전문 취급점  
교우 특별 우대  
정 현 모(다미아노)  
육 영 수(비비안나)  
전주 완산구 삼천동 흥건A 2차상가내  
☎ (063) 226-8188

### LG 에어컨 전문

천정형 에어컨, 냉난방기  
식당용 냉장고  
원 승 연(도밍고)  
백제로 빙상경기장 건너편  
☎ (063) 241-2000

# ☐ 익산북지구 본당소식 ☐

**금마** 주임신부 836-7187 사무실 836-6244 주임신부 한봉섭  
 F A X 836-6244 수녀원 836-7157 사목회장 소병모  
 어린이집 836-7931

1.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안내 : 15일(화)  
 특전미사 - 14일(월) 후 8시  
 유아세례 - 전 9시 30분  
 대축일 미사 - 전 10시 30분  
 \* 미사 중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2. 변(연희 마리아) 수녀님 피정 : 16일(수)~22일(화)  
 \* 많은 기도 바랍니다
3. 사제양성 후원회 총무 임명 : 박영자(아가다)자매님  
 \* 수고하시겠습니다

4. 금주 모임 : ① 대건회  
 ② 꾸르실로 울뜨레야 - 15일(화) 저녁미사 후, 사무실
5. 차주 모임 : 모니카회
6. 성당 청소 : 옥동 \* 차주 - 마전, 삼기, 기양
7. 오늘 전례 : 해설 - 이종석, 독서 - 권의성, 남궁경순  
 봉헌 - 최규식, 이정연 부부, 복사 - 박종명, 서정식
8. 차주 전례 : 해설 - 최태백, 독서 - 고인근, 장중순  
 봉헌 - 김상용, 이진숙 부부, 복사 - 정인수, 장중근

지난주 봉헌금 : 472,500원     교무금 : 580,000원

미수금 : 30,000원

**내바위** 주임신부 861-8183 사무실 861-8182 주임신부 이설우  
 F A X 861-8182 수녀원 861-8759 사목회장 최화성  
 피정의집 861-9210 F A X 861-9211

1. 금주 모임 : 꾸리아 회합 - 공식미사 후
2. 차주 모임 : ① 테레사회 월례회 - 22일(화) 후 8시 30분  
 ② 애령회 월례회 - 25일(금) 후 8시 30분  
 \* 울뜨레야 회합은 꾸르실로 교육관계로  
 27일 공식미사 후로 1주 연기합니다
3. 8월 15일(화) : 성모 승천 대축일로 의무축일이며 페루선교사  
 지원 2차헌금도 있습니다  
 \* 주일과 같이 버스 운행합니다
4. 여성 제70차 꾸르실로 교육 : 17일(목)~20일(주일)  
 박정옥(막달레나), 임정숙(미카엘라)  
 \* 많은 기도 바랍니다
5. 전대사를 받기 위한 전신자 성지순례 : 9월 5일(화) 7시 30분  
 \* 오늘까지 신청바라며, 특별헌금도 접수합니다
6. 성당 청소 : 18일(금) 전 9시
7. 금주 전례 : 첫미사 안내해설 - 우익중, 독서 - 전병철, 김수경  
 공식미사 안내해설 - 이신우, 독서 - 김창식, 김봉순  
 봉헌자 - 최화성 부부, 김재복 부부
8. 차주 전례 : 첫미사 안내해설 - 김택영, 독서 - 우철중, 김영숙  
 공식미사 안내해설 - 지윤경, 독서 - 조명일, 최선옥  
 봉헌자 - 이신우 부부, 이두희 부부

지난주 봉헌금 : 597,490원

**여산** 주임신부 836-9797 사무실 836-5016 주임신부 한기호  
 F A X 836-5016 수녀원 836-8395 사목회장 김기원

◎ 이주일의 말씀 : 요한 6, 41~51

1. 금주 모임 : ① 애령회, 바오로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교육관  
 ② 울뜨레야 - 후 8시, 교육관
2. 차주 모임 : 성모회, 테레사회, 요셉회 - 공식미사 후, 교육관
3.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미사 : 전 10시 30분
4. 주일미사 시간변경 : 전 10시 25분
5. 본당 및 성지 제초작업 : 22일 \* 전 공소, 구역 많은 협조 바람
6. 꾸리아 옥외행사(성지순례) : 25일, 미리내 성지
7. 차량 봉사 : 오늘 - 김기원, 이기완, 차주 - 송재옥, 이영근
8. 성당 청소 : 금주 - 동촌 구역, 차주 - 내촌 구역
9. 금주 전례 : 해설 - 조인신, 독서 - 전일구, 윤연순  
 봉헌 및 기도 - 영전
10. 차주 전례 : 해설 - 황덕순, 독서 - 조인신, 채총희  
 봉헌 및 기도 - 동촌

지난주 봉헌금 : 535,400원     교무금 : 460,000원

**용안** 주임신부 861-3275 사무실 861-3276 주임신부 전대복  
 F A X 861-4651 수녀원 861-7258 사목회장 박종식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1. 꾸리아회 : 공식미사 후, 교육관
2. 성모 승천 대축일 : 15일(화) 전 10시미사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3. 감사 헌금 : 성당 - 문길성 3만 \* 감사합니다
4. 중고 캠프에 협조하여 주신 분 : 박우양 5만, 김양수 3만  
 미카엘회 5만 \* 감사합니다
5.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행사에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 여성 제70차 꾸르실로 교육 : 17일(목)~20일(주일)  
 이영숙(마리아), 신인숙(다리아), 김영희(수산나)  
 \* 많은 기도 바랍니다
7. 본당 청소 : 18일(금) 전 8시, 맹산
8. 버스 운행 봉사자 : 차주 - 이성용
9. 금주 전례 : 해설 - 남용규, 독서 - 박종용, 김혜진  
 봉헌 - 박종철 부부
10. 차주 전례 : 해설 - 유용환, 독서 - 임기천, 임해주  
 봉헌 - 양형석 부부

지난주 봉헌금 : 737,030원     교무금 : 1,065,000원

**함열** 주임신부 861-0165 사무실 861-0065 주임신부 엄기봉  
 유아원 861-2966 수녀원 861-1539 사목회장 김종대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15일(화) 전 10시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이 있음

1. 금주 모임 : ① 꾸리아 - 공식미사 후  
 ② 구역(반)장 모임 - 16일(수) 전 10시  
 ③ 성모회 - 18일(화) 전 10시미사 후
2. 차주 모임 : ① 청년회, 하상 바오로회 - 공식미사 후  
 ② 울뜨레야 - 공식미사 후  
 ③ 애령회 봉사자 모임 - 22일(화) 저녁미사 후
3. 감사 헌금 : 돈다산, 강진복 5만 \* 감사합니다
4. 금주 전례 : 첫미사 해설 - 정수능, 독서 - 김대영, 박순덕  
 공식미사 해설 - 정대석, 전숙자  
 독서 - 임진영, 서명순
5. 성모 승천 : 해설 - 민준규, 독서 - 김종대, 주복례
6. 차주 전례 : 첫미사 해설 - 강영순, 독서 - 채남열, 김복례  
 공식미사 해설 - 김주성, 윤명자  
 독서 - 박창중, 기영숙
7. 금주 청소 : 하시 4만
8. 차주 청소 : 남당리 1만(17일~19일)

지난주 봉헌금 : 925,200원     교무금 : 1,342,000원

**황등** 주임신부 856-4951 사무실 856-6541 주임신부 서홍복  
 수녀원 856-4434 사목회장 김낙천

1. 꾸리아 : 13일 공식미사 후
2.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15일) : 주일과 같습니다
3. 세례식 : 15일 공식미사 중(9명)
4. 신등 공소미사 : 16일 후 8시
5. 페루 선교사 돕기 2차헌금 있습니다
6. 원장수녀님 피정 : 16일~19일 \*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7. 주일미사에 꼭 참여합니다
8. 감사 헌금 : 월성 2구역 - 김봉에 20만 \* 감사합니다
9. 창조신협 임시총회 및 관광교육 : 26일(토) 전 8시 출발  
 접수 - 창조신협(20일까지), 백양사, 회비 - 1만원
10. 금주 전례 : 해설 - 김순옥, 독서 - 박영철, 방순례  
 봉헌 - 마효천 부부
11. 성모승천 미사 : 해설 - 조성수, 독서 - 이수원, 김윤자  
 봉헌 - 이희봉 부부
12. 차주 전례 : 해설 - 김용자, 독서 - 장정기, 진경애  
 봉헌 - 윤석홍 부부

지난주 봉헌금 : 810,200원     교무금 : 466,000원